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14, 유신론과 과학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유신론과 과학입니다.

우리 시대의 논란이 많은 질문 중 하나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은 종교에 위협이 되는가? 종교적 신념은 과학적 지식과 조화될 수
있는가? 새로운 무신론자들과 함께 언급했듯이, 이것은 그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즉, 어떻게든 유신론적 믿음이나 어떤 종류의 종교적
지향이 과학과 갈등을 빚을 수 있으며, 진정으로 합리적이고 엄격한
사상가인 사람은 종교적 믿음, 영적 영역에 대한 어떤 종류의 신앙적
헌신을 피하고, 물질적 우주와 우리가 가진 지식을 얻기 위한 과학의
전달만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은 종교,
특히 유신론에 위협이 되는가? 종교적 신념은 과학적 지식과 조화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관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학주의 또는 실증주의, 즉 모든 지식은 과학을 통해 나와야
한다는 관점, 또는 모든 지식이 지식이라면 적어도 과학적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검증 가능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주장이
과학적으로, 즉 경험적 테스트를 통해 증명될 수 없다면, 전혀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과학주의 또는 실증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견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당신은 과학주의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관점은 God of the Gaps 정신으로, 종교가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는 관점입니다. 신학은 과학적 설명 이후에 남은 틈을 메웁니다.

이 접근 방식의 주요 문제점은 어떤 것이 과학적 설명과 신학적 설명을 모두 가질 수 없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과 신학의 몇 가지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논의의 맥락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갈등 이론으로, 과학과 종교는 본질적으로 서로 반대되며, 과학적이거나 종교적이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일종의 내재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옹호하기 위해 사람들은 종종 종교와 과학 또는 교회와 과학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과학사에서 특정 사건을 호소합니다. 갈릴레오 논쟁과 같습니다. 근대 초기에 지구가 실제로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공전하는지, 아니면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구 중심설 과 태양 중심설, 그리고 종교 편에 선 교회에서는 지구 중심설을 선호했습니다.

한편, 갈릴레오가 옹호한 코페르니쿠스적 사상은 지구 중심설에 도전한 견해였고, 과학이 승리했습니다. 갈릴레오와 태양 중심설은 옳았고, 그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교회나 신학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는 19세기에 다윈주의와 진화론이 등장한 경우, 그것은 종종 인용되고, 여기에는 기본적인 갈등이 있다는 중요한 역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종교적으로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과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갈등 이론을 긍정하지만 과학보다 종교나 신학을 항상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내재된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학과 과학이 때때로 갈등하는 정도로 갈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과학적 이론이 때때로 신학적 헌신과 충돌한다고 해서 세상의 진실이 성경적 진실과 모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우리는 데이터 세트를 해석하려고 하며, 때로는 과학적, 때로는 신학적인 모든 종류의 이론을 고안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론이 때때로 충돌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 세상의 모습,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가르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보는 또 다른 모델은 독립성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과학과 신학은 두 개의 별개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은 자연 질서를 탐구하고 신학은 초자연적, 영적 영역, 도덕적 영역에 관심을 두므로 결코 갈등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버드에서 오랜 고생물학자로 일한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이것의 한 버전, 즉 과학에는 관심사가 있고 종교와 신학에는 다른 관심사가 있어서 실제로는 결코 충돌할 수 없다는 겹치지 않는 마기 스테리아 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과학과 신학이 모두 조사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으며, 우리는 성경에서 이를 충분히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주의 기원, 인간 본성, 종의 기원, 전 세계적인 대격변의 홍수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특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언급하고 설명하는 역사 속의 온갖 사건들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약간의 중복이 있기 때문에, Gould의 중복되지 않는 마기스테리아 에 대한 생각은 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지하고 대부분의 기독교 과학 철학자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모델은 상호 작용 모델로, 과학과 신학은 동일한 현실에 대한 상호 작용적 접근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경쟁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글썄요, 우리는 양쪽에 관련된 이론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느 쪽이 다른 쪽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과 신학에 대한 상호작용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 수준에서, 이론 수준에서는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과학적 이론은 생물학, 화학 또는 물리학에 대해 이야기하든 물리적 세계의 어떤 차원에 대한 일종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고 체계화하려고 시도합니다. 두 경우 모두 데이터를 구성하고 정리하려는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 모두 이론적 수준입니다. 우리가 물리적 세계의 실제 사실 또는 진실과 성경의 사실 또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실제 갈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갈등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성경의 사실 또는 진실 또는 데이터를 해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 세계를 해석하려고 할 때 이론 수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특정 갈등의 경우 어떤 이론적 해석이 다른 해석을 교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과학 이론과 제 신학이 맞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 과학을 교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과학이 신학을 교정해야 할까요? 글썄요, 우리는 사례별로 접근해야 하고, 우리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실을 고려하고, 각 사례에서 내리는 이론적 추론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교정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제 신학에 과학적 조사가 드러내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제 신학이 드러내는 제 과학적 이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호작용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학과 신학이 때때로 같은 문제를 다룬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론적 접근 방식을 가져오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바로잡기를 기꺼이 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신학적 패러다임이나 과학적 패러다임을 고안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패러다임에 대해 말하자면, 20세기 말에 매우 영향력 있는 과학 철학자였던 토마스 쿤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60년대 초에 그는 획기적인 책인 과학 혁명의 구조를 출판했는데, 여기서 쿤은 과학의 본질에 대한 대중적 가정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매우 논란이 많았던 Kuhn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탐구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찰은 그가 말했듯이 이론에 얽매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론에 의해 채색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나 세상에서 관찰하는 현상은 생물학적이든 화학적이든 물리학적이든 다른 것이든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항상 패러다임에 의해 해석됩니다.

패러다임은 단순히 특정 분야에서 개발된 일종의 이론적 모델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본질에 대한 코페르니쿠스 이론과 대조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이론, 즉 지구 중심적 관점과 태양 중심적 관점을 고려해 보세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는 많은 행성 중 하나인가? 지구 중심론자 가 나가서 태양을 바라보고 하늘을 가로질러 갈 때, 그들은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보는 듯하다. 그들은 지구 중심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 반면 태양 중심론자나 태양

중심론자가 같은 현상을 관찰할 때, 그들은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데이터를 보거나 비슷한 경험을 하지만, 그들은 현상을 보고, 그들만의 해석적 틀이나 패러다임을 통해 현상을 경험합니다. 또 다른 예나 설명은, 예를 들어 창조론자와 거시진화론자가 같은 동물원에 가서 창조론자가 “와, 신이 만든 다양한 동물들을 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네요. 그리고 다윈주의자가 같은 동물원에 가서 같은 동물을 다 보고, 거기서 결론을 내린다면, 와, 놀랍지 않나요? 수억 년 동안 온갖 무작위 돌연변이를 겪은 자연선택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창조론자와 다윈주의자는 같은 동물을 보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물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론적 틀이나 패러다임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쿤은 오리-토끼 그림을 사용하는데, 이는 오리 또는 토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둘 다 볼 수는 없는 이미지입니다. 둘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봐, 토끼 이미지를 보여줄게”라고 말했다면, 화면에 이것을 띄우기 전에, 그들은 그것을 오리로 보기보다는 토끼로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미리 “오리를 보여줄게”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그것을 토끼로 보기보다는 오리로 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리-토끼 이미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좋은 비유입니다.

우리는 항상 특정한 이론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사실이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 격자를 통해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뿐입니다.

Kuhn의 또 다른 요점 또는 교훈은 과학적 이론이 데이터에 의해 과소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이론이 동일한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설명력, 일반적인 적합성, 우아함, 아름다움 등과 같은 것들 때문에 선택됩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추론된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이론은 단순히 데이터에서 추론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과학사에서 때때로 매우 유머러스하고 극적인 형태를 띠는 일종의 상상력의 도약이 항상 있습니다.

케쿨 레라는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특정 수의 탄소와 수소 분자를 가진 화학 벤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온갖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화학식은 C_6H_6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어. 그냥 곧은 사슬일 뿐이야.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불 앞에서 즐고 있었어.

완전히 의식을 잃기 전에 잠이 들면 일종의 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불 속의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어 꼬리를 만드는 것을 상상하거나 꿈꿨습니다. 그는 벤젠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아마도 그것이 그것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스케치를 그렸다. 과연, 그것이 설명이다. 벤젠은 교대로 이중 결합이 있는 고리와 같다.

그것이 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는데, 그것은 매우 무작위적이고 무질서한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방사선학은 비슷하게 우연적이고 무질서한 방식으로 탄생했습니다. 온갖 과학적 발견은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들은 비정상적으로 무작위적이예요. 하지만 과학자가 합리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단순히 데이터에서 직접 추론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항상 상상력이 풍부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론이 개발될 때, 그것은 항상 동일한 데이터를 설명하는 경쟁 이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느 이론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가입니다. 사실, 우아함과 같은 미적 특성이 고려됩니다.

어떤 이론이 데이터를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할까요? 어떤 이론은 다른 이론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자주 강조했습니다. 모든 경험 과학을 매우 효율적이고 우아한 방식으로 통합하는 웅장하고 통합된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은 아름다움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적 우수성을 가질 것입니다. 과학적 이론화에도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과학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가정은 어떨까요?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학의 전제. 과학자들이 내리는 가정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내리기 때문에, 감각 지각의 일반적 신뢰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감각의 특정 신뢰성을 가정하지 않고는 과학적으로 감각이 모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안과 의사나 이비인후과 의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귀를 검사하고 청력을 검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문가에게 가서 감각을 평가받을 때조차도 이미 감각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근본적인 가정입니다. 그것은 가장 엄격한 과학자조차도 감각이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하는 일종의 철학적 신앙의 기사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앙의 헌신입니다.

인과율의 법칙은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헌신입니다. 우리는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자연은 균일하며 자연의 법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미래는 과거와 비슷할 것입니다.

논리의 법칙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과학과 다른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내려야 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과학주의가 거짓이어야 하는 이유. 과학을 시작하기 위해 과학을 하기 전에 해야 하는 특정한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과학에 대한 우리의 관점 측면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의학, 운송, 통신 분야에서 특히 놀라운 성과를 거둔 과학의 권위, 힘 또는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용 비행기에 탑승하여 몇 시간 만에 뉴욕에서 캘리포니아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 심지어 뇌 수술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온갖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과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과학의 이러한 전제와 같은 특정한 신앙적 헌신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신학적 믿음이 아니라 철학적 신앙 조항이더라도 말입니다.

이제 과학적 방법론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할 때 신학적 고려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적절한가요? 그리고 사람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기원 논쟁을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한 관점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구별해야 할 두 가지 종류의 자연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라고 불리는데, 이는 물리적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견해입니다. 초자연적 존재, 신, 천사, 비물질적 인간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종류의 자연주의는 단지 방법론적입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초자연적 행위자에 대한 언급 없이 전적으로 자연 현상을 언급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신앙과 유신론적 또는 기독교적 헌신에 있어 확고한 현대 방법론적 자연주의자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강조하여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을 물질적 원인의 영역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 분화나 인간 의식과 같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초자연적 요인에 호소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나 특별한 신의 창조에 호소하려는 과학적 헌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자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자연주의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많은 방법론적 자연주의자들은 은밀한 또는 의도치 않은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는 독실한 기독교인일 수 있고, 여전히 신, 천사, 인간의 영혼을 믿는 방법론적 자연주의자일 수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모든 과학적 탐구가 이 원리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나 다른 유신론자는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일관되게 긍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적 자연주의가 기독교인이나 다른 유신론자에게 가장 좋은 견해일까요?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과학의 본질에 호소합니다.

과학의 요점은 다른 자연 현상의 관점에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초자연적 실체에 호소하는 것은 부정 행위입니다. 저는 주요 연구 대학에서 과학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 학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력한 방법론적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자연적 원인에 호소하여 종 분화나 심지어 인간의 의식을 설명하는 사람은 축구를 하다가 경계를 벗어나는 사람, 예를 들어 15야드 라인에서 워터쿨러 쪽으로 달려가 팀원들이 사이드라인에 있다가 필드 반대편에서 경계로 돌아오는 사람과 같습니다.

10야드 라인은 엔드존으로 들어가고, 내가 골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부정행위입니다.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과학의 본질은 우리가 항상 사건의 초자연적 원인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저에게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제가 한 대답은, 그게 질문을 피하는 게 아닌가요? 그는 그것을 부정행위라고 부르지만, 누가 말했나요? 누구의 권위로 초자연적 개입이나 초자연적 원인의 발생을 추론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인간의 의식이 인간이 가진 영혼이나 정신으로 설명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비과학적이라고 누가 말했나요?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 대해, 글썄요, 요즘은 과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적어도 주로요, 그 이상은 좋은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확실히 근대 초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현대 과학의 아버지들은 거의 모두 유신론자였고, 그들 중 다수는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은 신학과 과학을 통합하는 것을 완벽하게 자연스럽고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은 서양 문명의 과학 길드에서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지지하는 매우 강력한 추정이 우세한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과학사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과학을 하는 데 절대적으로 규범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기능적 무결성이라는 개념에 호소합니다.

하워드 반틸과 다른 사람들은 신이 물리적 세계를 자급자족하게 만들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스스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함으로써 이 개념에 호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주치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초자연적 행위자에게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기능적 무결성에 호소합니다.

이 방법론적 자연주의적 접근을 정당화하기 위해 반틸과 다른 사람들이 특정 신학적 고려 사항에 명시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자연의 법칙이 실제로 무엇이든 설명할 수 있는 실체인 것처럼 자연의 법칙을 오해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일상적이거나 규칙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이며, 이는 다시 자체 설명이 필요합니다.

역제곱 법칙이 있는 이유는? 강력하고 약한 핵력이 있는 이유는? 열역학 법칙이 있는 이유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은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 자체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대한 몇 가지 주장과 각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대한 대안은 유신론적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Alvin Plantinga와 지적 설계 운동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이 옹호하는 대안적 접근 방식입니다.

유신론적 과학은 과학을 할 때 신학적 고려 사항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는 신학적 진실을 포함하여 아는 다른 모든 것에 비추어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다른 학문 분야는 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의 의견에 열려 있다는 점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합리적인 일입니다. 학계에서는 학제간 접근 방식을 소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합니다. 과학이 왜 이것에서 예외여야 합니까? 철학자로서 저는 역사와 과학, 사회 과학, 문학 비평 등으로부터 의견을 얻고 싶습니다.

역사가들은 과학, 철학 등으로부터 의견을 얻고 싶어합니다. 신학자들은 다른 모든 분야로부터 의견을 얻고 싶어합니다. 과학자들이 신학을 포함한 다른 모든 분야의 의견에 열려 있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적 설계 이론은 다시 유신론적 과학의 예가 될 것입니다.

지적 설계 이론은 무생물 자연, 즉 우주의 미세 조정과 생물 영역, 생물학적 시스템 모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관점에서 설계의 증거는 우리가 종의 기원, 인간 의식, 우주의 기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든 초자연적 원인을 추론하도록 적절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생물학과 생물 시스템의 맥락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지적 설계 이론가가 종종 초자연적 인과관계나 설명의 증거로 지적하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더 단순한 전구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나 기능의 경우. 생물학적 영역에서는 예를 들어 DNA가 메신저 RNA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DNA와 같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한 순환이 있습니다. 이 극도로 복잡한 생물학적 기능의 순환이나 순환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이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Alvin Plantinga의 과학과 종교에 대한 생각에 대해 몇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약 10년 전에 쓴 *Where the Conflict Really Lies* 라는 엄청난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과학과 종교에 관해 읽은 책 중 가장 좋은 책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그의 논제는 과학과 유신론적 종교 사이에는 피상적인 갈등이 있지만 깊은 일치가 있고, 과학과 자연주의 사이에는 피상적인 일치와 깊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과 자연주의 사이의 갈등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둘을 연관시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엄격한 과학자라면, 그 때문에 자연주의에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잘 어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랜팅가는, 아니, 사실 거기에는 깊은 갈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둘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것이 아마도 그의 주요 주장일 것입니다. 자연주의는 우리의 인지 능력이 탐구에 신뢰할 수 있고, 사고가 현실을 반영하며, 우리의 인지 능력이 거짓 믿음보다 더 많은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과학의 기본 가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것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플랜팅가는 이것이 자연주의자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연주의자라면 다윈주의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다양한 속성과 특성을 설명하는 유일한 게임입니다. 그러니 제 인지 능력과 저에 대한 모든 것이 자연 선택의 산물이고, 오랜 세월을 걸쳐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에 따른 것이라면, 그것이 제 종에 환경에 대한 일종의 적응력을 만들어냈더라도, 제가 가진 인지 능력을 갖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그것은 내 인지가 진실을 지향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다윈주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인지 능력이 진정한 믿음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확신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우리의 인지가 생존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존에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짓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이유에서든 50살이 되어서 집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잡혀서 감옥에 갇힐 거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터무니없는 믿음이죠. 하지만 제가 30대 후반에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0살이 되면 집을 다 갚을 거라고 보장할게. 더 이상 모기지 빛이 없을 거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것은 누구에게나 유익할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많은 생존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적응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다른 예를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매우 유익한 이러한 인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인지적 능력이

만들어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과학에 매우 중요한 가정입니다.

유신론은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자연주의는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확신을 주지 않지만, 유신론은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유신론자는 신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실제로 설계했으며, 신이 우리에게 진실을 습득하고 참된 믿음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지 능력을 주는 데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과 유신론 사이의 주요한 일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즉, 유신론적 종교가 인간의 인지가 진실을 목표로 한다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의 균일성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항상 하는 가정이지만, 자연주의는 자연의 법칙이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어떤 종류의 확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신론자는 이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합니다. 신은 자연 법칙이 시간이 지나도 일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세상을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고, 과학을 하는 데 신뢰할 수 있어서 우리가 미래의 현상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과학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학의 효능은 자연주의자에게는 절대적인 미스터리인데, 물리학자들이 하는 이 모든 매우 복잡한 계산이 어떻게 세상에 잘 적용되는지, 계산을 할 때 실험을 할 때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먼 별에서 온 빛이 태양을 지날 때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그의 상대성 이론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19년 8월 남미 어딘가에서 일식을 통해 시험되었을 때, 아인슈타인은 그곳까지 가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이 확인되었을 때, 그의 조수 중 한 명이 그의 연구실로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 당신의 이론은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론은 확인되었습니다.

당신이 예상한 대로, 아인슈타인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하는 메모를 계속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반응은 오,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였습니다.

수학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학만으로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 매우 논란이 많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매일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은 수학적 계산에 근거한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여긴다. 심지어 책장을 만들거나 집에서 어떤 종류의 리노베이션을 할 때 조차도, 목공을 하거나 무엇이든 할 때마다 나는 이 사실을 떠올린다. 나는 수학적 계산을 하고, 주의 깊게 한다면 내가 만드는 물건, 내가 만드는 뷔페, 내가 만드는 책장은 내가 상상했던 대로 나온다. 왜냐하면 생각은 수학적 영역에서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썄요, 유신론자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설정했고, 그는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인식을 우리가 생각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학과 다른 생각을 하는 방식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학구적이며, 엄격해야 하지만,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신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자는 여기나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플랜팅가가 과학과 종교, 특히 유신론 사이의 깊은 조화와 자연주의와 과학 사이의 깊은 갈등에 관해 제기한 몇 가지 정말 좋은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학과 종교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유신론과 과학입니다.